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수출입은행 업무협약

### 유망 탄소기업 발굴 해외 수출 지원 추진

전주시가 맞춤형 금융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유망 탄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물꼬를 텄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25일 한국수출입은행과 전북지역 유망 탄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 지역 탄소산업 육성을 통한 전북 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유망 탄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유망 탄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술력 검증 등 관련기업에 대한 정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공하게 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추천한 기업에 대한 금융 및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유망 탄소기업들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출초기기업 육성프로그램,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상생 금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우대지원제도와 환원협력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기업의 수출역량을 배가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25일 한국수출입은행과 전북지역 유망 탄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이번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도내 탄소기업들의 기술역량과 특허, R&D현황 및 계획, 주요제품정보 등 기업의 혁신역량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관련 기업의 수출역량 및 지원여부를 판단해 향후 도내 탄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해외진출을 돕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시는 지역 내 유망 탄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이번 협약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과 맞물려 전주시 탄소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신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이날 "전주시와 전라북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탄소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해외 수출 지원 및 우리 지역내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준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전라북도 전라산업의 하나인 탄소산업에 대한 합동 지원체제가 마련된 만큼 전북지역 내 우수 탄소기업들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전북대, 지역 중독 전문가 양성

### 전문적 교육 실시 · 중독 환자 조기 발굴 · 맞춤 서비스제공

전북대학교가 운영하는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고성희 교수)가 알콜과 도박, 인터넷, 마약 등 중독에 대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한다.

25일 전북대에 따르면 센터는 중독 없는 동네 만들기를 위한 '꿈틀 사업' 발대식과 함께 통장 37명을 대상으로 중독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센터는 꿈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장들을 대상으로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 중독으로부터 고통받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통장의 경우 각 지역 사각지대에서 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가장 최일선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갖고 있어 이번 교육이 더 큰 실효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성희 센터장은 "꿈틀 사업과 통장 대상 교육은 지역과 밀착해 중독 질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독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중독문제 감소 및 예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전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모국음식 체험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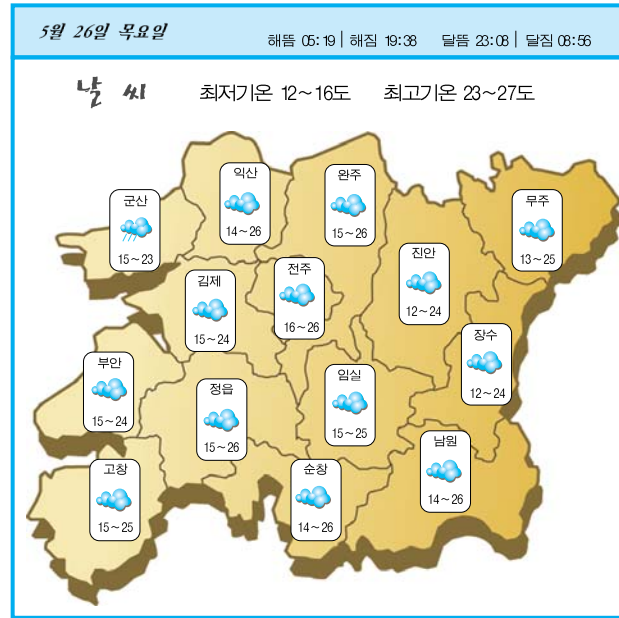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5일 관내 다문화가족 엄마와 자녀가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과 일본 등 각 나라의 문화, 인사법 등을 배우고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는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올 들어 추진중인 다문화이해교육의 일환으로 참석자들은 '오코노미야키'와 '로메오' 등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보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달

23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음식(우리마) 만들기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지훈 센터장은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구성원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이 됐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가족 간의 이해와 믿음이 쌓여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전주시 재무과 직원들 포도농가 일손돕기 봉사

전주시 공무원들이 영농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나섰다.

전주시 재무과 직원 25명은 25일 용정동 용신마을 포도 재배 농가를 찾아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포도순 따기 및 잡초 제거 등 농촌 일손 돕기에 힘을 보탰다.

이날 자원봉사활동은 바쁜 영농철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농촌지역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이날 뜨거

운 햇살 아래 구슬땀 흘리며 포도순 따기와 일손이 부족해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잡초 제거를 실시했다.

농가주 서병화씨는 "부족한 일손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적기에 방목하여 일손을 도와주시 무척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병호 전주시 재무과장은 "영농기 취약 농가에게 부족하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가 돕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도교육청, 오늘 전북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상업계 고교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업·정보능력을 겨루는 전북상업경진대회가 오늘 원광정보예술고와 진경여고에서 열린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21개 특성화고 학생 및 학교장 지도교사 등 총 742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 종목별 대회가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이날 하루 창업아이템 비즈니스영어, 정보활용능력, 쇼핑몰 디자인, 금융실무, 세무회계실무, 디지털경영, 상업경제, 회계실무, ERP, 취업포트폴리오 등 11개 경진분야에서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는 종목별로 6명씩 총 66명에게 금상(1명)·은상(2명)·동상(3명)과 한국생산성본부장상(11명) 및 익산상공회의소장상(11명), 대한상업교육회전북지부장상(11명) 등 총 33명에게는 우수상을 수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상업·정보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육성하고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상업경진대회를 열고 있다"면서 "대회가 열리는 동안 창업동아리 홍보부스와 동아리한마당 행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 www.jinansam.com |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 063-433-8398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